

뜻을 정한 자 (룻기 1:15-22)

인간에게 담은 언약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에게 병도 하나 있다. 언약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광야는 말씀 따라가야 한다. 광야에는 좀 강한 사람도 삼일이면 죽게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40년 살았다는 것은 기적이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인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너무 당연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90프로 이상의 신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언약으로 뜻을 정한 사람은 인간을 넘어서는 증거를 보았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예를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다. 그들의 신분이나 상황은 아무런 상관 없었다. 상관인 있는 것은 딱 하나인데, 언약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었다. 잘 아는데로 요셉은 노예였다.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였다. 다니엘은 포로였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응답을 누렸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써 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 진짜냐? 정말로 언약이면 다 되냐? 진짜 그리스도면 다 되는가? 언약은 내게 무엇이며 그리스도는 내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셨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정말로 인간 모든 것을 역전시킬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거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은 매일 생각하고 매일 언약잡고 매일 고백해야 한다. 여기에 하나님 약속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다. 그래서 항상 이 언약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오늘도 이 언약을 회복한 룻 때문에 그 가문이 회복되었다. 자기는 예수님의 세계복음화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다. 말씀을 세밀하게 듣고 하나님의 소원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진짜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임해서 답이 나와야 한다. 그러면 뜻을 정하게 된다. 나도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 정복하는 인생 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인생이 시작된다. 위기가 역전되는 축복을 보게 된다.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항상 가능했다고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한다. 언약으로 살지 않는 병이 고쳐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삶에 성취되는 증거를 보게 된다. 그래서 엘리사는 아무것도 필요없고 갑절의 영감 이것으로 끝이다, 이게 엘리사이다.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 바란다. .

1. 뜻을 정한 자.

오늘 이야기는 룻기인데 기본 메시지는 약속의 땅을 떠나면 저주 받는다는 것이다. 기근이 들어 약속에 땅을 떠나서 잘 살만한 모압 지방으로 갔다. 거기서 망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니가 돌아오면 내가 즉시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룻기 전체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이다. 중요한 언약이고 참 감사한 말씀이다. 그런데 룻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하필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이었다. 이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다윗의 고향이다. 미가서 5:2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 예수님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뜻이다. 그 약속의 땅이 지금은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언약을 잡고 뜻을 정한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회복되었다. 그것이 룻이다. 룻은 마음에 이미 깊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이 났다. 나오미가 복음을 전해줬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내 백성이라고 답이 났다.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가라 하지 말라고 하였다. 나오미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신앙이 자리 잡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살고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라고 하였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그곳에 나도 묻힐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테니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다. 아주 확실한 신앙을 가졌다. 나오미가 어려운 중에 아주 중요한 제자를 키운 것이다. 이 제자가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켰다. 쪽 읽어보면 이들 친족중에 경제가 충분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오미 가정에 토지를 회복시켜 주었다. 무슨 말이나면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갈 때 땅을 다 팔고 간 것이다. 돌아와 보니 땅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땅은 그냥 농사짓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다. 땅은 내것이니 팔지 말아라. 레위기 25:23절에 기록되어 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토지를 보고 기업이라고 한다. 구원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도 어떤 경우가 생기면 땅을 팔지 않을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곱 번 안식년 지난후 다음 해, 50년째가 희년인데, 이것은 안식후 첫날을 부활로 지키는 것처럼 이미 구약에서 담고 있는 메시지이다. 이 희년 때에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토지를 샀다 해도 희년에는 그냥 다 돌려줘야 한다. 즉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토지가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그 땅은 영원히 그의 것이다. 돈을 빌렸다 못 갚으면 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종되었던 사람들도 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희년 제도를 만든 이유는 해방과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구약의 모든 성경의 제도는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토지도 아들을 통해 집안 대대로 가는데, 나오미 가정은 다 팔고 다시 살 돈이 없다. 그래서 다시 되돌려 땅을 사주는 그 돈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대신 돈을 내고 사 준 것이다. 이것을 보고 기업무를자라고 한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 남자가 없다. 왜 남자중심이라면 예수님이 남자라서 그렇다. 그리고 남자를 먼저 만들었다. 그래서 남자 중심이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주고 그 집안의 며느리 룻과 결혼한다. 보아스는 아마 자기 부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 가정의 아들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되돌려 받은 땅을 그 아들의 명의로 두고 그 아들의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갚고 우리의 토지, 즉 구원을 회복시켜주신다는 메시지이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제도이다. 그래서 자기 신으로 돌아가지 않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룻을 통해서 가문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본문 15절에는 다른 며느리 오르가는 자기 백성과 신으로 돌아갔다고 말한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룻은 제자였고, 복음을 받은 자였다. 그래서 뜻을 정한 전도자가 되었다. 한 가문을 살릴 정도가 아니다. 마태복음 1:5-6절에는 족보가 나온다. 여기서 보면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다. 이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이 오벳이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다. 이 족보를 보면 출애굽 당시 최고의 여자 제자 라합의 며느리가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굉장한 포럼이 일어났을 것이다. 시대는 다르지만 두 사람은 다 이방인이고 중요한 축복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룻은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었다. 예수님의 세계복음화 족보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이다. 집에서 1-4장까지 한번 쪽 읽어보기 바란다.

하나님에게 뜻을 정한 룻의 인생 역전 스토리이다. 그 당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간 사람도 많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룻을 성경에 썼다.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당시에 기근 때문에 못 살아서 다른 나라로 건너간 사람중에 언약을 확실히 잡았던 사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많이 있다. 70억이나 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롯이 그런 사람이다. 나오미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렸을 것이다. 그래서 정확히 전달했기에 정확한 제자가 나왔을 것이다. 나오미는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아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이 복음에 정확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생각이 맞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인생 역전 주시는 것이다. 인생 역전, 정복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의미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가? 너는 언약의 땅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라. 기근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말아라. 니가 이 땅을 떠나면 저주가 올 것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도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롯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을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 되기를 바란다. 낙심한 사람들 혹 있을 수 있다. 할 일은 한 개 딱 있다.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유가 뭐가? 언약이 답이기 때문에. 다르게 답이라고 세상은 속인다. 속으면 안된다. 언약을 회복하고 있으면 저절로 기적이 일어난다. 문이 열린다.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

2. 나의 언약

내 언약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들 중에 내 언약 있어야 한다. 롯은 자기 눈으로 나오미 가정에 임한 저주를 봤다. 남자들이 다 죽었다. 지금도 이렇게 되면 썰렁할건데, 그 당시에는 큰 일 이었다. 그런데 롯은 복음 받고 제자되는데 그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적 저주가 임하면 신앙을 그만둔다. 아니면 불평 불만하고 놔 버린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게 목표였다는 그 말이다. 육신적인 것이 목표가 되면 길을 바로 갈 수가 없다. 몇주전에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 사도바울은 잡히는게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잡히는게 문제다. 사도바울을 걱정해준것이지만, 그러나 사도바울에게는 잡혀도 상관없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승리한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인생 정복하고 문제 정복한다. 이렇게 살면 끝나는 것이다. 롯이 그런 사람이었다. 남자 다 죽어버렸다. 그래도 괜찮아. 언약이니까. 이방인인데도 확실한 제자가 되었다. 이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지만 롯은 뜻을 정할만한 자기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뜻을 정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가 내용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나오미가 전해준 복음, 그것이 뜻을 정하는 이유였다. 이 복음이 롯에게 언약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고 이유였다. 그래서 롯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오미가 더 이상 말을 못할만큼 확실한 메시지를 전했다. 끝났다. 이것이 롯 자신과 나오미 가문을 회복시키는 답이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세계 복음화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이 여기에 있었다. 조그만 개인 한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볼수 있는 대목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테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쉽게 나올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났기 때문에 죽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였는가? 어머니에게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이다. 죽는 일 외에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평생 이 일을 두고 당신과 함께 간다. 이것이 제자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조직을 만든다. 평생 조직을 이 때 만들 수 있다. 제자의 기도제목이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사람을 보낼 인간이 되도록 나를 고쳐주세요.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따라가겠다는 결론이다. 이것이 롯이었다.

롯은 아마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었다. 나오미는 성경 시작부터 자기에게 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복음 역사이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원죄 일어나서 아벨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출애굽을 어떻게 했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롯에게 말했을 것이다. 이 하나님, 이 언약의 피, 롯이 이것이 마음에 들어온 것이다. 나오미는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정확하게 롯에게 전달이 된 것이다. 무엇을 보고 이걸 알수 있는가?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제자 안 붙는다. 롯이 보통 제자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다. 나오미의 복음은 성경에 아주 정확했을 것이다. 그것이 롯에 전달되어 복음을 통해 인간을 알게 되었다. 원죄를 아는 것이 인간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약속의 피도 알고 창세기 3:15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결단 나왔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내 인생 끝낸다. 정확한 복음이니까, 답이니까. 은혜로 들어왔다. 그리고 뜻을 정했다. 이 뜻이 롯에게 언약이 된 것이다. 이 언약 때문에 나라를 떠났다. 자기 부모 형제 가정 다 떠났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우리 나라 신 다 필요없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대단한 제자가 되었다. 오르바가 아갔다.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을 롯은 봤다. 그러나 답이 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 답 안 난 사람들 있을 것이다. 답 나와 한다. 그래야 방향이 멈춘다. 그 답은 그리스도 하나 뿐이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이기고 방향을 끝내게 해주신다. 답이 나와 뜻을 정한다. 뜻을 정하면 정복이 시작된다. 축복이 있기 바란다. 자신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고 정복한다. 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왔다. 뱀의 머리를 깨고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왔다.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기도의 중심이 되게 되어 있다. 사도바울에게는 평생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잊지 못했을 것이다. 모세가 어떻게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잊을수 있었겠는가? 우리도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 이 언약 안에서 언약에 도달할 나의 구체적인 언약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무기이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누릴수 있는 근본무기이다. 나의 언약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개인 무기를 가진 자가 되어야한다. 옆사람과 같은 것이라도 상관 없다. 나의 것이 되지만 하면 된다. 오직 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 그런 뜻이 아니다. 내것이 되어 있지만 되면 그것이 내 언약이다. 세상 사람들 전부 다 하고 같아도 상관 없다. 내 언약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기도한다. 언약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복음의 명문가문도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다. 상관 없다. 내 것이 되면 된다. 그것이 나의 것으로 주어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 언약이 있기를 바란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줄수 있는 제자 되기 바란다. 그래서 롯과 같은 제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함께 복음 운동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기 바란다. 이것 가지고 지역을 정복하고 미국과 남미를 살릴수 있기 바란다. 이 일을 하는 교회가 안디옥교회이다. 이것을 하는 교회가 미국과 남미의 망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기도요 이유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것이 내 인생 여정이 된다.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내 인생 이끌어가신다. 이 언약 성취과정이 내 인생 전체 여정이 된다. 내 인생이 주가 아니다. 내 인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핵심이다. 그 언약 때문에 나온 것이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은 부산물이다. 핵심, 근본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답 나면 응답 받고 정복한다. 우리는 정말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되기 바란다. 렘넌트 7명 다 그랬다. 우리도 뜻을 정하는 자 되기 바란다.